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주)피엔티와 750억원 투자유치 MOU 체결 (주)피엔티, 2차전지 Roll to Roll 설비기술 국내시장 점유율 1위 '20~'22년까지 구미 4공단에 106,038㎡ 부지에 공장신설, 80명 고용	투자유치실	 사진별첨
② ‘오늘은 어디 갈까?’ 경북의 카페 명소 60선 경북 카페여행 가이드북 발간, 주요 관광안내소 등 배포	관광마케팅과	사진별첨
③ 경북도,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전국 최다 선정! 문체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 15개소 확정 전국 57개소 중 15개소, 사업비 9억원 중 2.5억원 확보	관광정책과	
④ 경북소방본부, 지난해 43초마다 119신고처리 총 737,001건, 지난해 대비 45,888건(6.6%) 증가	소방본부	사진별첨
⑤ 경북도, 도민 행정편의 위해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자치행정과	
⑥ 경북소방본부, 2020년 새해 정기 인사 단행 2019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장 수여... 1계급 특진 3명, 특별승급 3명	소방본부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6(월)】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자	실장	황중하			
			팀장	황인수	주무관	윤희락	
연락처	054-880-4628						

경북도, (주)피엔티와 750억원 투자유치 MOU 체결

- (주)피엔티, 2차전지 Roll to Roll 설비기술 국내시장 점유율 1위 -
- '20~'22년까지 구미 4공단에 106,038㎡ 부지에 공장신설, 80명 고용 -

경상북도는 구미시와 함께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주)피엔티와 투자금액 750억원, 신규일자리 80명을 창출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준섭 (주)피엔티 대표이사, 김봉교 도의회 부의장, 김준열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주)피엔티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지 106,038㎡(32,000여평), 건축 72,976㎡(22,075평)에 2차전지 생산 장비 제조용 공장을 신설한다.

신설투자는 소형(IT 기기용) 및 중대형(전기차 & 에너지저장장치)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막, 양극막, 분리막을 생산하는 중대형 전극설비를 롤투롤(Roll to Roll)방식으로 코터(Coater), 프레스(Press), 슬리터(Slitter)하는 설비를 제조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유럽 수출물량 공급을 위해 2차전지 및 반도체 제조 라인 증설을 위한 것이다.

피엔티 관계자는 롤투롤 장비는 필름, 동박 등 얇은 소재를 회전롤에 감으면서 소정의 물질을 인쇄, 코팅, 도포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장비로써 광학필름, 2차전지 소재가공에 많이 사용된다. 종전 시트(Sheet) 단위 작업공정에 비해 적정장력 조정, 정밀도 유지, 고속으로

이송하여 생산성이 수십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피엔티는 2차전지 롤투롤 설비기술 국내시장 점유율 1위로, 2003년 설립이후 현재 매출액 2,567억원, 코스닥 상장('12년),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17년)된 글로벌 기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매출 신장률 2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이다.

롤투롤 장비는 중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의 전기차 수요의 지속 확대, 친환경 재생에너지시장의 지속 확장, ESS산업 지속 성장 등의 요인으로 2차전지 설비 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도내 유치한 바 있다. 2018년도에 에코프로 비엠(포항), 2019년도에는 포스코 케미칼(포항), LG화학(구미)을 각기 유치했다.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2차전지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글로벌경제 침체 등으로 악재들이 많은 가운데, 미래 첨단기술에 적용될 롤투롤 설비 제조사업 관련 투자를 결정해 준 피엔티에 감사하며, 이번 투자를 마중물 삼아 더 많은 기업을 유치 해 구미시 채도약의 전환점이 되는 경자년 새해가 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번째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2차전지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 투자소식을 안겨준 피엔티에 감사하다. 향후 경자년 새해에 도내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경북도내 투자기업이 더욱 번창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피엔티



경상북도



구미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추진계획

I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0. 1. 6(월) 14:00~ /경북도청(3층 사립실)
- 참석인원 : 15명 정도
 - 도지사, 도의원, 구미시장 등
 - (주)피엔티 김준섭 대표 등
- 투자규모 : 750억원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3년간)
 - (신규고용) 80명 정도
 - (투자지역) 구미국가산업 4단지(106,038m²), *첨단기업로 33
 - (투자내용) 특수목적용 기계제조(29299) 공장 신설
- 지원사항
 - (행 정) 공장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 지원
 - (재 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최종 산업부 심의결정)

II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4:05~14:12	07'	▶ 회사소개 및 투자계획 설명	(주)피엔티 김동일 영업상무
14:12~14:20	08'	▶ 인사말씀	김준섭 기업대표, 도지사 , 구미시장
14:20~14:25	05'	▶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김준섭 기업대표, 도지사 , 구미시장
14:25~14:30	05'	▶ 기념촬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6(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성 자	과 장	송 호 준		
			팀 장	손삼호	주무관	윤혜림
연 락 처	054-880-3205					

‘오늘은 어디 갈까?’ 경북의 카페 명소 60선

- 경북 카페여행 가이드북 발간, 주요 관광안내소 등 배포 -

경상북도는 시군을 대표하는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를 소개하는 경상북도 카페 베이커리 60 ‘오늘은 어디 갈까?’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광의 트렌드인 커피·카페여행을 반영하여 오래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 세련된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곳,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싱싱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독특한 디저트를 개발한 곳 등 23개 각 시군별 2~3곳씩 총 60곳의 카페, 베이커리를 담았다.

대형 체인점을 지양하고, 지역의 카페를 우선 반영했으며 방문객수, SNS 계정 회원수, TV 방송 및 언론 노출 빈도를 고려해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동해안권, 북부권, 중서부권, 대구근교권 4개 권역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으며,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대표 메뉴 및 가격과 해당 카페만이 갖는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을 곳곳에 배치하고, 카페에서 가까운 관광지와의 이동시간까지 수록하여 카페를 방문한 후 근처 관광지도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동해안권에는 푸른 파도가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카페 12곳을 ▲북부권에는 백두대간의 산으로 둘러싸여 초록색 풍경을 가진 안동, 영주, 문경, 영양, 예천, 봉화의 카페 15곳을 ▲중서부권에는 낙동강 줄기 따라 흐르는 김천,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의 카페 20곳을, 마지막으로 시골의 여유와 도

시적 세련미를 함께 갖춘 ▲대구근교권에는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의 카페 13곳을 담았다.

경북도는 가이드북을 도내 주요 관광안내소 및 관광호텔, 관광지 등에 배포하고, e-book 형태로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추후 팸투어단을 모집하여 권역별로 카페 및 주변 관광지를 탐방하는 ‘카페여행 팸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사계절 방문하기 좋은 경북의 카페, 베이커리로 꾸민 가이드북에 실린 명소에 많이 찾아오셔서 차와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가지시고, 근처 관광지도 방문하여 경북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 1. 6(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서 태 원		
			팀 장	김경숙	주무관	정석대
		연 락 처	054-880-3189			

경북도,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전국 최다 선정!

- 문체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 15개소 확정 -
- 전국 57개소 중 15개소, 사업비 9억원 중 2.5억원 확보 -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공모에 15개소(개인가옥 14개소, 마을단위 1개소)가 선정되어 전국 57개소 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올해 국비예산 2억 5천만원(문체부 총예산액 9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매년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 및 단체(밀집지역,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시·도를 통하여 문체부에서 공모·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전통음식, 공예, 한복, 전통 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고택 음악공연 등 전통한옥 및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주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별가옥은 총사업비 대비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마을단위 및 밀집지역은 국비 40% 지방비 60%의 보조율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2006년부터 22개 시군 197가옥에 40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도내 한옥체험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400여 개소(전국 한옥체험업 1,400여 개소)를 도내 각지에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이용객 현황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누적이용객 195만여명의 성과를 이뤘다.

증가요인은 도가 꾸준히 추진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의 효과와 체험과 힐링이라는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한옥체험에 대한 관광객들의 높아진 관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도는 도내 각지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0여개소의 한옥체험업 지정 업소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진정한 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잘 보존된 고택이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양적으로 전통한옥 숙박체험의 최적지다” 며

“최근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양한 세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숙박 장소가 바로 전통 한옥이다. 올해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경북의 우수한 관광지도 둘러 보시고 숙박과 전통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숙박 체험을 많이 이용하시어 경북 한옥의 멋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2020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선정결과

- 전국 최다 선정, 전국 57개소 중 15개소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문체부 매년반복사업)
- 사업내용 : 도내 한옥체험업 대상으로 공연(고택음악회 등), 전통 음식·공예·다도·혼례·제례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기준

개별 가옥	마을 단위
• 1개소 당 최대 국비 30백만원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 1개소 당 최대 국비 60백만원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 '19년 실적 : 2개 시군 8개소(안동 6, 청송 2), 300백만원(국비 150)
※ '06년 ~ '19년 : 197개소 3,997백만원 지원, 누적이용객 195만명

■ 선정결과

- 대상지 : 7개 시군, 15개소 (개별 14, 마을단위 1)
 - 안동 7, 봉화 3, 구미 1, 영천 1, 상주 1, 군위 1, 청송 1
- 사업비 : 624백만원(기금 250, 도비 78, 시군비 198, 자부담 98)
※ 문체부 기금 예산액 900백만원(전국 57개소)

<문체부 선정 공고 현황>

구분	계	경북	전남	전북	서울	경남	충남	경기	강원	충북	대구	기타
선정업체수	57	15	9	5	5	5	4	4	4	4	2	-
국비(백만원)	900	250	205.9	66	83	70.8	56.4	41.5	56	46.4	24	-

■ 기대효과

- 숙박과 전통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이색 체험과 힐링을 선호하는 개별 자유 여행객 유도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6(월)】	담당부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작성 자	실 장	정 훈 탁		
			팀 장	최원익	주무관	은학수
		연 락 처	054-880-6413			

경북소방본부, 지난해 43초마다 119신고처리

- 총 737,001건, 지난해 대비 45,888건(6.6%) 증가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119신고 건수가 총 737,001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2,019건, 43초마다 1건씩 화재·구조·구급 신고 등을 접수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총 691,113건에 비해 6.6%(45,888건) 증가한 것으로, 그 중에 긴급신고(화재, 구조, 구급)는 258,125건이 접수되었고, 구급이 159,674건(61.9%)으로 제일 많았으며, 구조는 61,245건(23.7%), 화재는 37,206건(14.4%) 순으로 처리됐다.

비긴급신고(민원상담, 대민출동 등)는 총 478,876건이 접수되었으며, 단순안내 등 민원상담이 188,879건(39.4%), 무응답·오접속이 126,497건(26.4%), 대민출동 79,384건(16.6%)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총 737,001건 신고 건수 중 8월에 88,960건(12.1%)으로 제일 많았고, 9월 82,405건(11.2%), 7월 76,166건(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2월이 45,786건(6.9%)으로 제일 적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87,887건(11.9%), 구미시 64,916건(8.85%), 경주시 58,707건(7.9%) 순으로 많았으며, 울릉군이 2,537건(2.9%)으로 제일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 ~ 12시 사이에 100,303건(13.6%)로 신고 건수가 제일 많았으며, 오전 4시 ~ 6시에 17,088건(2.3%)으로 제일 적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영상 및 문자 신고가 가능한 다매체 신고내역은 총 24,263건이 있었으며, 그 중 문자신고는 17,707건(73.0%), 영상신고는

6,402건(26.4%), 기타신고 154건이 처리되었다. 이는 2018년 총 17,073건 대비 42.11%로 증가한 수치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소방본부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도민에게 신속하게 양질의 신고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피난약자 정보제공 신고접수시스템 운영, 상황요원 119신고 전화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시스템 개선과 상황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했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119신고접수는 소방 활동의 출발점이자 복잡·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도민을 신속히 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새해에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6(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성자	과장	정진환		
			팀장		주무관	조현학
연락처	054-880-2839					

경북도, 도민 행정편의 위해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경상북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도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시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위장전입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 6(월)】	담당부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작성 자	과 장	한 상 일		
			팀 장	유문선	주무관	변재만
		연 락 처	054-880-6150			

경북소방본부, 2020년 새해 정기 인사 단행

- 2019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장 수여... 1계급 특진 3명, 특별승급 3명 -

경북소방본부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 새해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지방소방경 이하 86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장은 승진자 71명(소방경 19, 소방위 14, 소방장 8, 소방교 30), 소방본부 전입자 15명(소방경 6, 소방위 4, 소방장 3, 소방교 2) 등 총 86명에게 수여됐다.

임용장 수여식에 앞서 2019년 업무추진 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고령소방서 김명삼 소방위는 제1회 세이프(SAFE) 대상, 안동소방서 이윤형 소방위는 2019년 화재대응 유공, 경북소방본부 김용희 소방위는 2019년 최우수 베스트 소방공무원으로 선정되어 1계급 특진을, 구미소방서 전진영 소방교, 문경소방서 최장헌 소방장, 경주소방서 권진현 소방장은 2019년 우수 베스트 소방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특별승급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지난 1월 1일 이진우 성주소방서장이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정훈택 상주소방서장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남화영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제복 공무원으로서 경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 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7일(화) 오전 9시 도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다.